

## 지방자치·종합

# “사회발전 역할 고민… 정치도 그 중 하나”

안철수, 재단 설립 회견… 정치참여 가능성 열어놔 행보 관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사회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 “정치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원장의 발언은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철수 재단’(가칭) 설립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제가 정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평생 끝없이 고민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달라”고 말해 향후 정치 참여 가능성에 열어두었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여전히 총선에서의 야권 지원이나 대선 직행 가능성을 넘겨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발언은 최근 안 원장이 현 단계에서의 정치 참여에 대해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부재단 설립을 대권 행보와 연관 짓는 시각에 대해선 “왜 기부재단과 정치 행보를 연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뒤 순수한 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안철수재단(가칭) 박영숙(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사장이 6일 오전 종구 프레스센터에서 재단설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산학원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안 원장은 정치 행보와 정치 협약 등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기부재단 관련 질문만 받겠다고 선을 그은 뒤 수평적 나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혜(施惠)가 아닌 수평적 나눔 실현으로 기회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 세대 간 재능기부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이 같은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원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리 문제, 소외계층 교육, 세대 간 소통이라고 판단해 우선 중점 사업으로 정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좀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 이름은 오는 16일까지 임시 웹사이트([www.ahnfoundaion.org](http://www.ahnfoundaion.org))를 통해 일반 국민의 제안을 받고 나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ju.co.kr

박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여부 빠른 시일내 결정

## 與 공천 물갈이 기폭제 되나

### “쇄신도 하고 총선도 잘 치러야 돼 고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자신의 총선 불출마 여부와 관련, “달성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만간 전달받고 (불출마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달성군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원과 당직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그분들이 달성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대구를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4개월만으로, 이날 방문은 언론에 거론되는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지역구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결정한다는 것 이 (불)출마 여부”라는 질문에는 “그

렇다”고 답했고, “공천신청 문제도 (결정하느냐)”는 물음에도 “그것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가 공천 신청 마감”이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되겠죠”라고 말해 이번 주내에 불출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불출마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비대위원장은 맡으면서 책임이 막중하고 당쇄신도 하면서, 총선 도 잘 치러야 되고 이런 여론이 생 각을 하면서 고민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달서구 한식당에서 지역구 당원협의회 간부 50여명과 1시간30여 분 가량 오찬을 함께하면서 불출마 여부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당원들 대다수는 “여기(지역구)는 신경 쓰지 말고 큰일을 하시라”, “우리는 대통령을 원한다”와 같이 지역구에 불출마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 총별 면적 개요

총별	면적	평	총 고	용 도
1 층	1,374.92	415.91	4.8m	근은, 업무시설, 기계실
2 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3 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4 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5 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 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 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 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 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기준(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 예정 가격	12,000,000,000원
현 공 정 을	약 85% 진행
적 용 가능 용 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휴트니션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 시설 병원 등 최대층고 7.5m으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 가능

문의처 : 010-3625-6984

# “시대 변했는데…” “군복무규율 위반”

### 軍 국민경선 참여 제한 놓고 논란

총선·대선 앞두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가 주목받는 가운데, 군의 엄격한 정치참여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군인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정당·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6일 “어떤 형태로든 군인은 민간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인 군인이 참여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자료를 인트라넷에 게시했다.

군사령부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군인은 정당의 당직자 선출

경선에서 참여할 수 없다는 점 ▲당직자 선출은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

특정 정당 경선 참여 자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제한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군인은 포함, 공무원의 국민경선 참여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정당법상 군인을 포함해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인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제한되지 않는 한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할 때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지난 2010년 경주장 운영법인인 KAVO와 계약이 체결돼 변경할 수 없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추가로 배수시설과 진입도로 등을 건설할 예정이어서 외부에서 지적하는 만큼 임대료가 지난 치에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개발공사측 설명이다.

전남개발공사는 “2년 전인 2010년 계약이 체결된데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모터스포츠대회 외에는 별 다른 수익을 내기 어려워 경주장 활용방안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F1경주장에 태양광설비 건설

### 주차장 부지에 600억 들여 올 대회전 완공

F1 경주장에 600억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F1경주장의 주차장 일부 부지에 600억원을 투입, 13.3㎿(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영암F1태양광발전(주)이 지난달 구성됐고 3월 착공에 들어가 8

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SK D&D와 서부발전, 신성솔라에너지, 솔라파크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100% 민자사업으로 경주장 부지 소유권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주차장을 발전 설비 부지로 빌려주고 연간 3500만원(3,300㎡당 500원)의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매년 3%씩 인상된다.

## 기금류 농장 AI 방역 구멍 시설 설치·운용 39% 블과

우리나라 일선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달간 전국 기금류 농장 975곳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AI 관련 방역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곳은 39%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35%, 출입통제시설을 갖춘 곳은 36%로 조사됐다.

야생조류 차단막이 있는 농장은 41%로 다소 높았다. 규모가 300㎡ 이상 농가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발판 소독조의 경우 전체 농가의 43%가 운용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 광주 복지시설 1200곳 전면 점검

### 강운태 시장 지시

광주시는 올해 중에 복지시설 1200개 전체에 대해 점검을 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6일 간부회에서 “올해 안에 복지시설 1200개 전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순위를 매기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어린이집과 장애인

설은 1차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

설로서 시가 직접 담당해야 한

다”며 “점검과정에서 민간단체

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강 시장은 ▲보호 밭아 할 사람과 제대로 보호를 받는지 ▲복지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후원조직과 후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어린이집과 장애인

설은 1차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

설로서 시가 직접 담당해야 한

다”며 “점검과정에서 민간단체

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강 시장은 “어린이집과 장애인

설은 1차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

설로서 시가 직접 담당해야 한

다”며 “점검과정에서 민간단체

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강 시장은 “어린이집과 장애인

설은 1차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

설로서 시가 직접 담당해야 한

다”며 “점검과정에서 민간단체

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